

## 2018년 5월 26일 “(가정의 달) 야곱 가족 이야기”(창 28:10-19; 32:21-32)

### <도입>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베엘 사건(28 장)과 브니엘 사건(32 장)을 봄으로써 영적 가정의 조건을 생각해보겠습니다.

### [1] 두 사건의 의미

야곱은 형의 살의를 피하여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도중에 루스에서 밤을 맞아 잠을 잘 때 사다리 꿈을 꾸입니다. 긴 사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15 절**(읽음) 아브라함/이삭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이로운 영적 경험이었습니니다.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과는 다른 실체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7 절**에서 ‘두려운 곳’, 베엘(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하란 라반 집에서 삼촌에게 속고 고생했지만 결국 12 아들과 딸과 많은 재산과 가축을 얻고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귀향 길에 압복강을 지나려는데,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재산을 두 떼로 나누어 먼저 보내고, 가족도 앞서게 한 후 홀로 강가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하나님)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겁니다.

이 씨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고된 몸부림을 동반하는 기도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셨지만 그에겐 큰 영적 축복의 체험이었습니다.

**32:27-29**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불합당한 거대로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 야곱(속이는 자, 찬탈자)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면의 깊은 밑바닥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족이나 자신, 그 무엇도 지킬 수 없는 완벽한 무력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곳(베엘과 브니엘)에서의 경험이 야곱의 영적 도약을 이끄는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 [2] 베엘과 브니엘 사이에서

이 두 장소 사이에서 보냈던 하란에서의 삶은 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얻어 가족을 이루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 축복은 우연히, 또는 야곱이 계획하고, 애써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야곱의 때에 이 약속의 부분적 성취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의도하신 인간 복의 상태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성취입니다. 그는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을 보게 할 12 아들을 낳습니다. 모든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는 12 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29 -31 장**에 기록된 하란에서 얻은 약속의 성취의 축복은 야곱 인생의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많은 자손들을 낳습니다(출 1 장).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이방 땅 하란에 이어 이집트에서 하십니다. 그들이 주권을 빼앗긴 종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32:9-12). 이것이 가정의 영적 가정의 선명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가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할 소명입니다.

### [3] 자신이 야곱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이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참 자기 발견/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도 죄를 오래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단의 지적에 자기 존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합니다. **시 51:5**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존재 바닥의 비참함을 토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을 주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눅 5 장). 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야곱 됨, 다윗 됨, 베드로 됨의 첫 단추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이 없는 삶은 영적 도약이 어렵습니다. 오늘 날 교회가 힘을 잃고 진정한 기독교 윤리도 찾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야곱의 야곱임을 고백하는 것은 새 사람 이스라엘 됨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시작이듯이 가장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와 같은 고백이 앞서야 합니다. 그 결과는 가정의 영적 성장을 가져옵니다.

야곱은 이 후에도 삶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축복의 통로로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황제 바로 앞에서 험악한 130 년을 살았다 말하면서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다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 <맺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바닥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세계를 보고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모든 가정에 이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야곱의 벤엘 사건과 브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체로서 경험하고, 자신의 깊은 내면의 바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2. 세상의 어떤 일도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으로 가족과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까? 허심탄회하게 나의 생각을 말씀해 봅시다.